

# 정보화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

The Sillicon Society

(David Lyon 저/임일택 역/대구:CUP 1991. 12.발간예정)

임일택

현대는 정보의 시대라고 한다. 그것을 반영이라도 하듯 현재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을 세 축으로 하는 국제적인 규모의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고급 통신장비들과 다중매체(음성, 영상, 데이터 신호를 함께 처리하는 장치)의 단말기(terminal)들을 연구 개발 중이다. 또한 대학에서는 디지털 정보의 획득, 처리, 저장 및 전송과 관련된 논문들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오늘날의 세계는 이른바 '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나아가고 있다고도 표현한다.

정보화 사회란 컴퓨터의 다양하고 뛰어난 정보처리 및 저장 능력이 첨단 통신기술(광통신, 위성통신)과 결합됨으로써 등장하게 될 매우 새로운 미래의 사회를 의미한다. 현재 널리 보급되어 있는 IBM PC, 그리고 전화선을 이용한 통신기기인 MODEM과 FAX 등의 범용화를 고려한다면, 이미 정보화 사회라는 나무가 우리 사회 내에

서도 상당히 많이 자랐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보다 본격적으로 그것이 구현되는 것은 아직도 미래의 일이다.

정보화 사회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단말기의 “다중매체화” 및 “지능화”, 그리고 통신의 “개인화(personalization)” 및 “국제화(globalization)”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다중매체화”라 함은 컴퓨터 한 대가 단순한 계산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 신호와 영상 신호, 그리고 데이터 신호의 입력, 처리, 저장 및 전송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래에는 컴퓨터가 다중매체의 신호처리기 및 통신 시스템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능화”라 함은, 정보의 입출력이 지금까지처럼 자판(keyboard)을 통한 것인지 혹은 프린터를 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컴퓨터가 인간의 음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사람이 컴퓨터에 말을 함으로써 제어도 하고, 정보를 입력시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광통신과 위성통신, 그리고 이동통신을 생각할 수 있다. 광통신의 경우, 광섬유가 사무실이나 주택의 내부에까지 연결됨으로써 음성, 영상, 데이터 신호를 광섬유 한 가닥에 통합적으로 전송하게 될 것이다. 광통신은 통신 용량이 거의 무한대이므로 움직이는 영상 신호도 전송할 수 있다. 그래서 수년 내에 등장할 차세대 텔레비전인 고선명 텔레비전(HDTV: High Definition TeleVision: 화면의 선명도가 영화에 육박하는 대화면 텔레비전) 신호도 디지털화 되어서 전파 대신 광섬유를 통해 전송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위성통신은 그 응용이 확대되어서 자동차의 자동운행 시스템, 위치확인 시스템 등을 구현하는 데에 핵심 기술이 될 것이며, 또한 카폰이나 휴대용 전화기와 같은 이동통신 기술이 계속 발전하여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개인별로 극소형 무선 전화를 시계처럼 차고 다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통신의 “개인화”와 “국제화”가 동시에 달성되는 것이다.

이상의 설명은 만약 사람들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재의 기술 발전의 추세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도달하게 될 미래 사회의 모습에 관한 것이다. 화려한 청사진들로 가득차 있는 인류의 미래와 그것의 핵심으로서의 정보화 사회는, 특별한 저해요인이 없는 한, 위에서 언급한 모습으로 급속히 실현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즉 위의 목표들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혹은 그 사회가 정말로 편리하고 자애로운 모습을 띠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 대중은 물론이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조차도 미래 사회에서 일어날 일들의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세계 굴지의 기업들은 목전의 이윤을 얻기 위해 이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뿐 아니라 각국의 정부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기업의 그러한 연구개발 활동들을 장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국력은 곧 경제력이며, 경제력의 기초는 기술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만 한다. 기술의 발전이 너무도 빠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회의 변화를 더 이상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인류의 미래는 알 수 없는 운명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화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그 사회로의 이행의 속도를 줄이며, 그 방법을 보다 정당하게 채택하여서, 궁극적으로 그 기술들이 사람과 자연에게 유익을 끼칠 뿐 아니라 사회를 보다 나은 모습으로 바꾸는데에 기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기독교인들이 현실의 그런 추세를 우선 정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현대기술의 발전 현황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실리콘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미세전자공학(micro-electronics)을 발전시켰고, 또한 그것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켜가고 있는지를 이 책은 설명한다. 전자공학의 발전은 단순히 편리한 가전제품들만을 제공해 준 것이 아니라, 산업 구조에 변화를 초래했고, 사회생활의 양태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서비스직의 증가와 정보 처리와 관련된 새로운 직종의 생성 등은 모두 그 결과들이다.

그 다음으로 이 책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결코 그러한 조류를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 책이 끊임 없이 강조하는 요지이다.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서 현재의 추세를 맹목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의 발전 과정을 위한 올바른 인도지침을 파악하고, 그것을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는 어떤 방향이 확고히 설정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임의로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무의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즉 기술의 발전에는 그 자체만의 필연적인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도적인 개입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기술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영국과 스웨덴의 몇몇 긍정적인 예들을 통해 사람들이 의도하기만 한다면 기술의 선도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과학기술을 은근히 우상으로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확실히 기술의 현실적 매력들을 다소 상대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따라서 기술에 대한 보다 책임있는 발전 방향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실천을 촉구하는 몇 가지 실제적인 행동들을 제안하고 있다. 그것을 요약하면, “인식의 확산”, “기업 내부로부터의 노력”, 그리고 “압력단체의 활동”이다. 우선 오늘날 국제사회가 급속히 정보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현실을 일반 대중이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사회로의 이행이 경솔하고 선부르게 이루어진다면, 매우 위험한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개인 정보의 사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일이다. 뜻있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법률이 올바르게 제정되는 데에 기여할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두번째로 기업 내부에서 이런 흐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역할들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어렵긴 하지만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 기업을 경영할 때에는, 어떤 방향이 정당하고 사회를 위해 진정으로 유익한지를 늘 검토해 보고, 그에 따라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일반적 생리에 배치되는 태도이므로, 실제로는 매우 신중하게 행해져야 함은 물론이다.

세번째로 건전한 시민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들이 기술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압력단체의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언론의 역할이 특히 부각이 된다. 이런 여러가지 통로를 통해서 항상 필요하고 정당한 압력들을 가해야만 정보화 사회의 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현대사회가 당면한 중대한 문제를 깊이있게 다루는데 있어서 다소 부족한 느낌이 든다. 사실 이 책은 대중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주로 포괄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 현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치밀한 실천 대안들이 결여된 채 산발적인 촉구들을 남발하는 것은 정보화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데에는 미흡하다고 본다. 다만 앞으로 유행하게 될 주제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인정할 수 있겠다.

아마도 이제는 전문 직업에 종사하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책을 번역하는데 만족하기보다는, 자신의 영역의 주요한 문제들을 이 책이 바라보는 것과 같이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성

경의 교훈을 기초로 하여 그 문제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들을 생각해 보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이고도 지속적인 실천을 시도해볼 때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자칫하면 그 조류에 무력하게 이끌려 갈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독교인 공학도라 할지라도 시간과 능력은 남들과 마찬가지로, 전공과정을 따라가 기에도 급급한 것이 현실이므로 대개의 경우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당장 자신에게 요구되는 일을 해내는 데에만 몰두하기 십상이다. 그리고 주어진 일에 성실히 책임을 다하는 것은 개인 윤리의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므로 결국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을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는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보다 올바르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기술의 발전이라는 차원에만 국한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보다는 경제 성장과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삶의 방향에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각 영역에서 함께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치나 교육과 같은 여러 영역에서 다각적인 시도가 일어나고, 그것이 기술 발전의 방향과 속도에 영향을 미쳐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만 책임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의 사회가 가능할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은 이런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위한 극히 초보적인 입문서인 셈이다.